

총회본부 별관 신축 · 리모델링 급물살

건축 인허가 모두 마쳐... 입찰자 선정 후 8월 중 착공신고

총회본부에 별관이 신축된다. 총회본부 본관과는 별도로 현 주차장 부지 973.38㎡(294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다.

유지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4일 현장설명회를 갖고 공사시공업체 7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사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변허를 가진 7개 업체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새마을 신축빌 총회 별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면적 173.45㎡(52.46평) 용적률 153%로 지하층 191.55㎡(58평), 지상층 510.16㎡(154평) 건축면적 701.71㎡(212평)로 건축된다. 지하 1층에는 사무공간과 선교홀로 사용될 예정이며, 1층은 로비와 전시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2~4층은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구성되어 협소했던 총회본부의 업무공간과 회의공간에 승용이 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신축함으로써
기존 사용되던 주차장은 현 선교관
건물에 주차동으로 새롭게 신축된다.



자주식 주차와 함께 지상층은 복지로
구성돼 주변경관과 함께 시티의 역할
도 감당한다. 유지재단은 오는 11일
시공사 브리핑을 진행한 후 오는 7월

말까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 중에는 계약 후 착공신고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총회본부는 시설의 노후화와

이로인한 보수비용이 해마다 발생해 새롭게 신축 또는 타 부지로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왔었다. 현 총회본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것



은 문화유산보호구역의 특성으로 인
해 인허가 과정에서 번번히 빈번되어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

유지재단의 이번 총회회관 별관 신축은 이러한 어려운 난관 가운데 나온 계획으로 총회회관 전체의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별관 신축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그간 협소하고 불편했던 업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

유지재단 이사장 류제곤 박사는 “충화본부는 교단의 얼굴이며 자부심입니다. 60년 이상된 건물로 미관상 으로나 안전 문제에서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개건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다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충화를 방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고 말했다.

총회장, 총회 산하기관 업무 순시

본지 비롯한 4개 기관 업무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지난 6월 19일과 7월 1일 양일간 총회 신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교단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매년 5월 교단 총회 후 총회장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는 간소하게 진행하려는 총회장 홍사진 목사의 뜻에 따라 별도의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신하기관 업무보고로 상견례와 함께 업무 파악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지난 6월 19일에는 성결대학교 회의실에서 은금재단과 유지재단, 성결대학교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이 업무보고 시간을 갖고 총회장에게 주요 업무와 현황보고, 주요 사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홍 총회장은 “교단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진행하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하는 곳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결교단이 될 것을 간절히 기원했다.

각 기관들도 업무 발전을 위한 건의 등을 검토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부총회장 이광
섭 장로와 총무 권순달 목사가 함께
배석했다.

지난 7월 1일에는 본지 성결신문사
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교단 총
무 권순달 목사가 함께 배석한 가운
데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신임사장
취임후 첫 보고의 자리로 이날 사장
김종현 장로는 일반현황 보고와 함께



지난 7월 1일 진행된 성결신문사 업무보고 모습

2025년 발전계획을 제시하며 “전지면의 컬러화를 지난 610호부터 시작해 이제는 정착이된 단계이며 차후 점진적으로 16면 확대, 격주간에서 매주간 발행으로 발행주기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을 보고했다.

총회장 홍사진 목사도 “교단의 기관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감사를 드린다”며, “늘 깨어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교단 유일의 언론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북방 길리아프랑스를 7년에 걸쳐 정벌하고 돌아온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제국의 황제가 된다. 그는 해와 별의 움직임, 해그림자의 이동 등을 연구한 끝에 당시 1년 10개월인 달력을 폐기하고 1년 12달 365일의 달력(태양력)을 B.C 45년에 완성 및 배포한다. 그리고 1,500여 년 사용해오던 율리우스력을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미세한 오차를 수정하여 내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다.

2070여 년 전 망원렌즈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1년 12달 365일의 달력(율리우스력)을 만든 로마인의 지혜와 관찰력, 그리고 당시 로마의 문화, 문명의 수준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7월은 그 달력을 만든 율리우스가 태어난 달로, 그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July라 명명했다.

이러한 July(7월)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한 달, 두 달', '전반기, 후반기', '1년, 2년' 등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매듭지는 것은 참으로 다채로운 일이다. 그 매듭을 지을 때마다 잘못을 헤아려 새로운 매듭을 위해 나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Carl Jung)은 인생을 전반기, 후반기 두 계절로 설명했다. 삶의 과제 중 전반기는 영역확장(Expanding)과 뿌리내림(Rooting)의 시기라 했다. 그 과제를 이루어가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

한다. 사별, 사랑과 사업 실패, 관계 악화, 질병, 꿈의 어긋남 등은 위기이자 삶의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어 후반기의 삶으로 옮겨진다. 후반기의 과제는 관계 회복(Relationship)과 진정한 자아(Real Identity)를 찾는 시간이다. 생명의 수역자이신 하나님과 가족,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자 하며, 또 나쁜 구원가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때'이다.

급변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성공신화를 벗어나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가는 후반전 여정이라면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인생의 여정은 정원의 화초와 같다. 다듬을수록 향기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치자꽃 향기가
오늘따라 그립다.

清水 ehc3s@hanmail.net

清水 ehc3s@hanmail.net

[illegible]